



신문

주님은 토기장이

1 기도

2 찬송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(146쪽)

3 말씀 읽기 이사야 64:7-8

-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
- 8 그러나 여호와여,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

4 말씀 이해하기

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를 토로합니다. 그들 중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.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(사64:7), 그들은 가치 없는 진흙과 같습니다.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겁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며,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만드실 수 있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(8절). 진흙이 가치 있는 그릇으로 바뀌는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타락한 유다가 심판으로 끝날 것인지, 아니면 회복될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.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.

바울은 이 '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'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(롬9:19-24). 주님은 우리에게도 토기장이이십니다.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째, **그분은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신 절대자이십니다.**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(21절). 하나님은 세상을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,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. 누구도 그분에게 '왜 그렇게 하십니까?'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.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.

둘째, **그분만이 진흙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.**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바울은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흙과 같다고 합니다.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. 그들은 타락하여 나면서부터 그 계획과 생각이 악합니다(창8:21).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거룩한 새사람으로 바꾸십니다. 마치 진흙을 가지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 내는 토기장이와 같습니다.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치를 갖습니다(갈2:20). 주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. 성도는 그분의 손 안에 있으므로 복됩니다.

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

1.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각각 와 이라고 말합니다(8절).
2.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진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(7절)

3. 선지자는 백성들의 악한 상태를 토로한 후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부릅니다. 이유가 무엇입니까?

4.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부른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?

5. 주님께서 우리를 새사람으로 빚으십니다. 나의 인격 중에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.

6 함께 하는 기도

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,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.

7 주기도문